



미 증시, 6 월 FOMC 경계심리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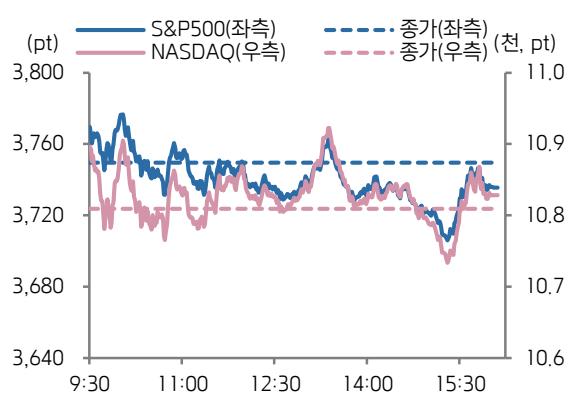
14 일(화) 미국 증시는 최근 2 거래일 동안 연이은 폭락세 과도 인식, 오라클(+10.4%)발 호재 등으로 장 초반 반등에 나섰으나, 이후 6 월 FOMC 경계심리 확산 속 10 년물 금리 상승 등이 장중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5%, S&P500 -0.38%, 나스닥 +0.18%, 러셀 2000 -0.39%).

CME FedWatch 기준 6 월 FOMC 에서 75bp 인상 가능성 90%대까지 상승한 가운데, 더들리 뉴욕 전 연은 총재는 “지난 주 소비자물가 지표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 불안하게 하는 소식”이었다고 발언하며 75bp 인상 가능성을 언급. 이에 미 10 년물 국채 금리는 3.48%까지 상승하며 2011년 이후 최고치, 2 년물 금리 역시 3.45%까지 상승하며 2007년 이후 최고치 기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낙폭이 심했던 나스닥에 저가매수세 유입 및 개별 기업 호재가 전해지며 소폭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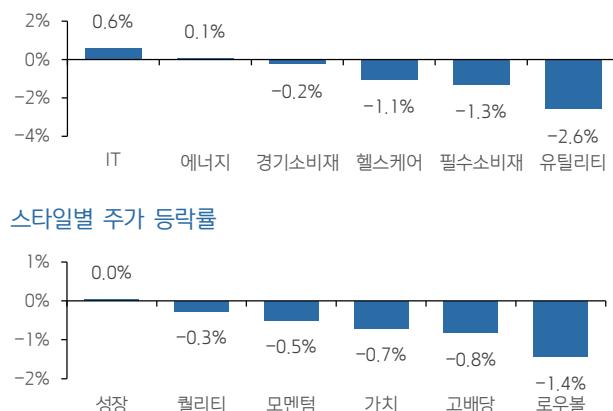
미국 5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0.8%(예상치 10.9%, 전월치 11.5%) 상승을 기록하며 예상치를 소폭 하회, 두 달 연속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6 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기록.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예상치 8.6%, 전월치 8.6%). 에너지(45.3%) 및 식료품(13.0%) 부문의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에 기인.

업종별로 IT(+0.6%), 에너지(+0.1%) 업종만이 상승한 가운데 유太高(-2.6%), 필수소비재(-1.3%), 헬스케어(-1.1%) 업종의 낙폭이 컸음. 오라클(+10.4%)이 인프라 클라우딩 사업의 분기 매출이 증가한 영향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영향으로 급등하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견인. 코인베이스(-0.83%)는 경영진이 경기침체 때문에 직원의 18%를 감원한다는 계획을 밝히며 전일에 이어 추가 하락.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3,735.48	-0.38%	USD/KRW	1,286.36	+0.16%
NASDAQ	10,828.35	+0.18%	달러 지수	105.48	+0.38%
다우	30,364.83	-0.5%	EUR/USD	1.04	+0.01%
VIX	32.69	-3.91%	USD/CNH	6.76	+0.02%
러셀 2000	1,707.83	-0.39%	USD/JPY	135.47	+0%
필라. 반도체	2,689.89	+0.63%	채권시장		
다우 운송	13,239.19	+2.12%	국고채 3년	3.555	+2.5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685	+0.7bp
Eurostoxx50	3,475.18	-0.78%	미국 국채 2년	3.427	+7.3bp
MSCI 전세계 지수	593.77	-0.65%	미국 국채 10년	3.473	+11.4bp
MSCI DM 지수	2,545.05	-3.6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6.46	-3.62%	WTI	118.93	-1.65%
MSCI 한국 ETF	60.96	+1.16%	금	1813.5	-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6%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73%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9.4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한국시간 16 일 새벽 발표 예정인 6 월 FOMC 경계심리 심화 가능성
2. 장중 발표 예정인 중국 소매판매, 산업생산 등 5 월 실물경제지표 결과
3. 장 개시전 동시호가때의 전반적인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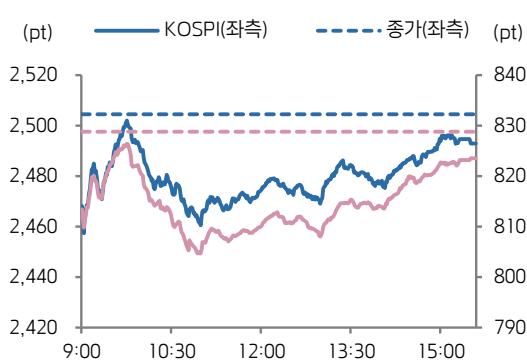
미국의 5 월 생산자물가(10.8%YoY, 예상 10.9%)가 4 월(10.9%)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는 점은 2 분기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근원 생산자물가 8.3%, 4 월 89.6%). 그러나 미 10 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3.5%대 직전까지 급등했다는 점에서 추정해볼 수 있듯이, 현재 시장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여부를 떠나서 고 인플레이션 장기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 전망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지난 5 월 FOMC 에서 파월 의장은 75bp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지난 10 일 소비자물가 쇼크 이후 시장에서 프라이싱 하고 있는 6 월 75bp 인상 확률은 90%대, 7 월 75bp 인상 확률은 88%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이는 6 월, 7 월 FOMC 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기정사실화됐으며, 연준이 6 월 FOMC 에서 75bp 인상과 더불어 포워드 가이던스를 정책 경로 변경을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7 월 FOMC 까지도 변동성 장세가 수시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 7 월 후반부 들어서야 본격적인 2 분기 실적시즌에 들어가는 만큼, 6 월 FOMC 이후에도 당분간 매크로에 대한 증시 민감도가 높은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LG 에너지솔루션발 호재 등으로 낙폭을 축소하는데 성공했던 국내 증시는, 금일 미국 증시 폭락세 진정,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이 반등 재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6 월 FOMC 경계심리가 지수 상단을 제한할 전망. 장중에는 봉쇄조치 해제 효과가 반영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소매판매(예상 -7.1%YoY, 전월 -11.1%), 산업생산(-1.0%, 전월 -2.9%) 등 5 월 실물 경제지표 결과에도 영향 받을 것으로 예상.

한편, 전거래일 장시작전 동시호가 때 하한가 종목들이 속출하면서 장 개시 직후 전반적인 지수가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이은 증시 하락이 특정 종목들의 레버리지 베팅(미수 신용 등)에 대한 반대매매 물량 출회 리스크를 높이고 있는 모습. 다만, 이 같은 강제성을 띤 매도 물량 출회로 인한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과 무관한 가격 움직임이라는 점을 감안 시, 지속성이 짧은 악재로 볼 수 있으며 또 저가 매수 기회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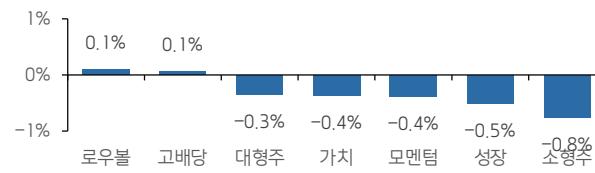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수합니다.
